

# 한국어 격조사분류와 유정성

김 충 실

金忠实(上海外国语大学) : 韩国语格助词分类和生命度

**摘要:** 论文分析了以跨年代和体裁语料分析, 中世纪韩国语格助词的分类基本上是以其意义、功能、声调、生命度、尊卑为基准, 并被视为应严格遵守的原则。通过分析发现, 中世纪属格助词的分类基准生命度和尊卑之分, 到了近代、现代助词的分类上, 生命度和尊卑基准的制约变得淡薄。

**关键词:** 生命度, 生命度层级, 韩国语 格助词

## 1. 머리말

유정성(生命度)은 언어유형론의 주요한 개념 중의 하나이다. 유정성이 통사현상의 어떤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언어마다 어떻게 부호화되는 지에 대해 학계에서는 많은 논의를 해왔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유정성은 격 표시, 주어 선택, 어순 등 형태와 통사, 그리고 의미, 담화 등 여러 방면으로 부호화 된다. 본고는 Comri(1986)와 Croft(1990), Whaley(2010)의 유정성의 위계와 유정성 변인에 기초하여 한국

---

\* 이 논문은 2015년 상해외국어대학교의 일반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다. 基金项目: 上海外国语大学校级一般项“基于语言类型学生命度理论的韩国语句法研究”的阶段性成果。

어 격조사의 유정성을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한국어가 유정성이 높은 언어라는 것을 증명해 보임으로써 한국어의 언어보편성과 언어 본질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선행연구는 중국국내와 한국의 연구로 살펴보았다. 중국에서는 심가현(沈家煊)이 1989년에 Comri의 《언어의 공성과 언어의 유형》(1981)을 번역한 후 학계에서는 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최근 10여 년간 학술저작으로 한편이 출간되었고 박사논문 두 편, 그리고 석사논문 세 편이 제출되었다. 그러나 생명도에 관한 연구는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어 학계에서는 중국보다 조금 늦은 편이다. 한국은 유정성에 관한 논문이 많지 않았지만 아래 소개하는 세 편의 논문은 깊이 있게 다루어져서 본 연구에 밑거름이 되었다.

한국에서 유정성을 다룬 첫 논문으로서 연재훈(1995:213-217)을 들 수 있다. 그는 기능-유형 문법의 관점에서 유정성의 정도 차이라는 의미자질이 유형론적으로 여러 언어에서 중요한 형태-통사 상의 차이를 유발하는 경우가 발견된다고 하였다. 그는 한국어에서 유정성의 정도 차이가 피동문의 주어화 절차의 제약 조건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어떤 명사구 논항이 주어 위치에 올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김은일(2000)에서는 영어에 비하여 한국어는 유정성이 높은 언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영어의 동사는 [유정성]과 상관없이 사용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무생물 주어 구문도 [유정성]의 문제로 해석하였다. 그의 연구

에 따르면 영어는 타동성이 높은 동사도 무생물 주어를 허용하는 반면 한국어는 타동성이 높은 동사의 경우는 무생물이 주어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의 예를 보면 ‘drink’는 주어의 [유정성] 여부와 상관없이 쓰일 수 있는데 반해 한국어의 ‘마시다’라는 동사는 주어가 반드시 유정 물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어에서는 목적어의 유정물 여부도 동사의 선택에 관여하는데 목적어가 사람이면 ‘데리다’나 ‘모시다’가 사용되고 목적어가 무정물인 경우는 ‘가지다’라는 동사가 사용된다는 언어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유현경(2007)에서는 한국어에서 명사에 [유정성]자질이 있으면 무조건 조사 ‘에게’가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서술어의 종류나 화자의 판단에 따라 조사 선택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였다. 한국어의 [유정성]은 조사 ‘에게’의 선택에 관여하는데 이는 주로 화자의 심리적 판단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사 ‘에게’가 출현하는 조건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결합되는 대상 명사에 [유정성]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는데 명사에 [유정성]자질이 있을 때에도 모든 경우에 ‘에게’가 결합되는 것이 아니라 [유정성] 자질에 대한 화자의 판단에 따라 조사 ‘에게’의 결합 여부가 결정된다고 제시하였다. 조사 ‘에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양태적 조건인 [유정성] 자질에 대한 화자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분석은 유정성 계층이 단일한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에서 정보가 꾸러지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의미적 특질 사이의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그리고 주향아(2013:223)에서는 ‘와/과’ 등위 접속 명사구의 형성과 어순에 대하여 유정성 위계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그는 ‘와/과’ 등위 접속 명사구의 형성은 선행 명사구가 유정성 위계상 동일한 지위에 있을 때 접속이 가장 자연스럽게 선행 명사구의 유정성 위계가 서로 다르다면 위계가 높은 쪽이 선행하고, 낮은 쪽이 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

라고 제시하고 있다. 중국 한국어 교육학계에서는 김충실(2014)에서 생명도 등급 확대 이론에 근거하여 생명도가 복수표기 ‘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논문에서는 2인칭과 3인칭 및 재귀 인칭대명사는 수의 대립이 있고 1인칭은 수의 대립이 없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명사와 대명사의 제약을 참조하여 유형론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제시한 Croft의 네 개 유형 중에 중국어는 제3유형에 속하고 한국어는 이 네 가지 유형에 속하지 않는 다른 유형이라는 것을 밝혔다. 또한 인칭대명사는 사회적 범주에 속하므로 신분, 연령, 성별 등에 따라 같지 않은 인칭 복수표기가 사용된다는 것과 중국어와 한국어는 1인칭 복수표기에 존대기능이 있고 3인칭은 일반적으로 현장에 없기 때문에 경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다.

연재훈(1995)과 김은일(2000) 두 학자의 연구는 문장차원에서 한국어의 유정성을 제시하려고 하였고 김충실(2014)은 형태론적 차원에서 유정성을 살폈다. 윤현경(2007)은 개별 조사의 유정성의 확대사용 현상을 논의하였고 주향아(2013)에서는 어순과 유정성의 관계를 논의하였다. 본고는 위의 연구 성과에 기대어 한국어 조사 체계를 대상으로 중세 한국어에서부터 유정성이 어떻게 부호화되어 나타났고 그들이 문법에 주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를 토론하고 후속 연구로 유정성이 한국어 조사의 생략에 미치는 영향, 유정성이 한국어 어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한국어가 유정성이 높은 언어라는 이들의 관점에 대해 한층 증명해 보이고자 한다.

### 3. 유정성과 그와 관련되는 변인

#### 3.1 유정성 개념

언어유형론의 중요한 개념인 ‘유정성’은 생물학적 의미와 언어학적 의미 두 가지로 정의될 수 있다.(ittila, Seppo 외(Kittila, Seppo 외: 2011:5) 언어학적 의미에서의 유정성은 개체가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힘이나 사건을 발생하게 하는 힘에 기초하여 정리된다.

유정성의 연구에서 가장 선구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학자는 Bernard Comrie이다. 그는 일찍 유정성은 형태론과 통사론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변수라고 주장하여 왔다. 그의 뒤를 이어 Corft(2009)에서는 확대유정성의 계층을 논하였고, Whaley(2010)에서는 유정성의 변인에 대해서 논하였다. 유정성 계층이 언어 조직화에서 인간 정신의 중대한 특질을 드러낼 것이라고 가정하는 언어유형론의 주장은 그것이 세계 언어의 여기저기에서 산발 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유정성이 많은 언어에서 역할을 하는 것은 명확하다. 여기서는 이들의 논의를 개괄적으로 소개하여 본고의 논의에 근거로 삼고자 한다.

Comrie는 자연어언의 형태론과 통사론을 이해하는데 유정성의 중요성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는 연구에서 인간은 동물보다 더 유정적이고 고유명사는 보통명사보다 더 유정적이며 일인칭과 이인칭 대명사에서 1인칭 대명사는 2인칭 대명사보다 더 유정적인 것으로 등급이 정해진다고 하였다. 그의 논의를 도식으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도식1. 유정성의 계층

1, 2인칭>3인칭 대명사> 고유명사> 친족어> 인간 명사구> 동물 명사구>  
무정명사구

이와 같이 유정성 계층을 설정함으로써 더 유정적인 명사어가 덜 유정적인 명사의 앞에 위치하고 동사 일치는 더 높은 유정성을 가진 명사어와 일치한다고 서술했다. 그의 뒤를 이어 Croft(1990)는 유정성 위계를 인칭위계, 명사구 유형 위계, 고유의 위계 등 세 가지로 하위분류하여 제시했다.(Lindsay J.Whaley(2010:226)을 참조)

(1) Croft(1990)의 유정성 계층 :

- ① 인칭 위계 - 1인칭, 2인칭 > 3인칭
- ② 명사구 유형(NP-type) 위계 - 대명사 > 일반명사
- ③ 유정성 고유의 위계 - 인간 > 비인간 유정물 > 무정물

이에 대해 Yamamoto(1999:59,4)는 Croft(1990)의 초기 유정성 위계는 순수하게 언어적 접근에서 정리하였으며, 세 가지 하위 위계의 정신적인 배경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Crobett(2001)는 유정성 위계에 친족어까지 포함하여 확장된 유정성 위계를 다시 제시했는데 도식으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도식 2

(2) Crobett(2001)의 유정성 위계 :

화자(일인칭 대명사) > 수신인(이인칭 대명사) > 삼인칭 > 친족 > 인간 > 유정물 > 무정물

위의 세 학자가 제시한 위계는 본고의 논의에서 한국어 격조사의 유정성을 살펴보는데 이론적 근거가 될 것이다.

### 3.2 유정성과 관련되는 변수

유정성은 계층성 외에도 사회중심적 유인, 친숙도, 한정성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한다. 이러한 변수가 어떻게 유정성에 작용하는지 알아보자.

#### 3.2.1 사회중심적 유인

유정성의 계층은 또 사회중심적 유인에 의해 구조화된다. 이것은 화자나 저자들이 그들 자신과 그들의 말을 듣는 이에게 가장 큰 중요성을 두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포착한다. 그래서 비록 인간 유정명사구로 지시되는 실체가 1인칭이나 2인칭의 대명사의 지시물만큼 유정적이더라도 담화 구성에서 후자 쪽에 어떤 우선권이 부여된다는 것이다. 이는 ‘에’의 유정성이 확대되는 상황을 설명하는 데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 3.2.2 한정성

한정성이 유정성 계층 구조 내에서 역할을 한다. 대명사와 고유명사는 언제나 한정적이다. 인간명사구가 비인간 명사구보다 담화에서 더 쉽게 중심적이기 때문에 역시 더 한정적이기 쉽다. 이것은 유정명사들도 마찬가지이다. 유정성 위계에 작용하는 한정성으로 목적격 조사의 생략을 설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3.2.3 친숙도

계층은 화자나 저자들과 친밀하거나 공감을 가지고 있는 명사구에 우

선권을 준다. 담화를 형성하는 동안, 참여자들은 그들 자신과 서로를 알고 있다. 그러므로 직접적인 발화행위에 참여하나 이들이 1인칭과 2인칭이 변인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갖는다. 3인칭 대명사는 화자나 청자가 둘 다 그들의 마음 안에 특별히 확인 가능한 실체를 나타내고 또 그러한 실체들에 대한 인식이나 공감에 있다. 이와 유사하게 고유명사들은 대화 참여자 사이에서 더 높은 친밀도를 필요로 하고 따라서 인간을 지시하는 다른 명사구들에 대해 하는 것보다 더 큰 친숙함이 필요하다. 중국어에서는 아래와 같은 예문을 들어 친숙도를 설명하였다. 아래 예문은 高莉萍(2005) 석사논문 “생명도가 한어통사 및 의의에 대한 제약과 영향(生命度对汉语句法语义的制约和影响)”이란 논문에서 인용한 것인데 “这台电脑”는 필자가 보충한 것이다.

(1) 这台电脑, 我买了。

(2) 这电脑, 他买了。

예문(1)은 중의성을 띤 문장으로서 하나는 “내가 이미 샀다.”는 뜻과 또 하나는 “내가 살 것이다.”라는 두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에 예문 (2)는 다만 그가 이미 샀다는 뜻만 갖고 있다. 이는 한국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문장에 대응하는 한국어 문장은 아래와 같다.

(3) 이 노트북, 내가 샀다.

(4) 이 노트북, 그가 샀다.

위의 두 예문은 중국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할 수 있다. 예문(3)은 중의성 문장이고 (4)는 중의성이 없는 문장이다. 이는 1인칭의 친숙도가 3인칭 친숙도보다 높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친숙도가 높을수록 유정



성이 높다. 유정성은 이같이 사회중심적, 한정성, 친숙도 등 변인들이 서로 작용하면서 통사구조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다음에 연구되는 격조사의 생략 현상에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이다.

#### 4. 한국어 격조사분류에서 유정성의 기준

격이란 영어의 case의 번역이며, 영어의 case는 라틴어의 casus에서 온 것이고 이것은 다시 희랍어로 번역된 것이다. 그리고 이 희랍어는 체언이 문장 안에서 쓰일 때 다른 말과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때 어형이 변하게 되며 이 변화된 어형이 기본형이고 본 주격형으로부터 벗어난 꼴이라는 뜻으로 쓴 것이었다. 이 정의에 따르면 한국어는 체언의 어형 변화도 없고 이른바, 격 표시를 위한 어순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 대신 독립된 조사가 있어서 인구어의 격에 해당하는 역할을 나타낼 수 있다. 여러 언어이론들에서 격을 형태론적으로 의미적으로, 또는 구조적으로 분류하여 왔다. 그렇다면 기능으로도 분류가 가능하다는 가설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직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없다.

유정성은 여러 언어 격표시에도 나타났는데 말라얄람어에서도 볼 수 있었다. Mohanan(1982)에 따르면 말라얄람어의 직접 목적어는 유정일 경우에는 대격이 표시되고 무정일 경우에는 주격이 표시된다고 하였다.

한국어의 경우에도 중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격조사에 반영된 유정성의 흔적을 많이 볼 수 있다. 중세기 한국어의 격 체계 분류는 의미와 기능, 성조, 그리고 음운, 존칭 등 여러 조건을 기준으로 한 것 외에 유정성을 기준으로 한 것도 있었다. 의미적 기준에 의해 분류된 격 체계는 속격, 대격, 처격, 여격, 방향 격 등을 들 수 있고 기능을 기준으로 한 격 체계는 주격, 관형격 목적격 서술격 등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성조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을 보면, 중세국어의 일인칭 대명사는 ‘나’였으며, 주격형과 관형격 형은 ‘내’였는데, 성조에 차이가 있었다. 주격형은 거성 ‘·내’이었고, 관형격 형은 평성의 ‘내’이었다. 이 주격형은 현대국어와는 달리 낮춤말(현대어의 ‘저’)이 없었다. 일인칭 대명사 복수는 고대어와 같이 ‘우리’였다. 그리고 이 복수형도 낮춤말(현대어의 ‘저희’)이 없었다.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 (5) 내 이틀 爲<sub>ᄃᆞ</sub>야 스물여덟 字를 甞<sub>ᄃᆞ</sub>노니 <훈언>.
- (6) 大王하 엇더 나를 모르시<sub>ᄃᆞ</sub>니잇고 <월석 8:92>.
- (7) 부테 우리의 ㅁ스매 小法 즐기<sub>ᄃᆞ</sub>는 ㄷ 아르샤 <법화 2:231>.
- (8) 우리<sub>ᄃᆞ</sub>는 다 부텃 아들 곤호니 <월석 13:32>.

이인칭 단수 ‘너’의 주격형은 상성의 ‘네’, 관형격형은 평성의 ‘내’이었다. 그리고 복수형은 ‘너희’였다. ‘너’보다 약간 대우하는 이인칭으로 ‘그딕/그티/그디’가 있었으며 그 관형격형은 ‘그딕’이었다. 이 ‘그딕’은 현대국어의 ‘자네, 당신’의 의미에 해당하여, 오늘날의 ‘그대’와는 의미가 달랐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9) 네 네 고흥 마트라 <능엄 3:45>.
- (10) 長者 | 네 아비라 <월석 8:98>.
- (11) 너희 디마니 혼 일이 잇<sub>ᄃᆞ</sub>니 썰리 나가라 <월석 2:6>.
- (12) 그딕 아바니미 잇<sub>ᄃᆞ</sub>닛가 <석보 6:14>.

인칭대명사 미지칭 ‘누’(誰)의 주격형은 거성의 ‘·누’였으며, 관형격형은 상성의 ‘누’였다.

유정성이 사용된 격조사를 보기로 하자. 관형격에는 유정성 기준이 사

용되었는데 관형격조사는 평칭의 유정명사에 붙는 ‘의/의’가 있었고 특수한 명사나 대명사 뒤에 붙는 ‘ㅣ’, 무정명사나 존칭의 유정명사에 붙는 ‘ㅅ’이 있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3) 사슴뿔 등과 도즈기 입과 눈 <용가 88장>.
- (14) 거부비 터리와 툇기 썰 곧더니 <능엄 1:74>.
- (15) 牛頭는 쇠 머리라 <월 1:27>, 나랏 小民 <용가 52장>.
- (16) 부텃 모미 여러 가짓 相이 그즈샤 <석보 6:41>.

이외 또 존칭 기준과 유정성 기준이 함께 쓰인 것이 있었다. 속격 ‘의’는 유정물 평칭에 쓰고 속격 ‘ㅅ’은 존칭과 무정물에 쓰이었다. 속격조사 ‘의/와’ ‘ㅅ’(소위 사이시옷)이 있었는데 ‘의/의’는 사람, 동물과 같은 유정물의 평칭에, ‘ㅅ’은 유정물의 존칭과 무정물에 사용되었다.

‘의/의’는 속격과 처격에 쓰였으나 유정성에 쓰이면 속격, 무정물에 쓰이면 처격이 되어 구별되었다.

그리고 호격에는 존칭의 구별이 있었다. ‘하’는 아랫 사람이 윗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고 ‘아’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부를 때 사용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예문이다.

- (17) 世尊하/ 임금하
- (18) 大王아

세존은 최상의 대상이므로 언제나 ‘하’를 붙이지만 세존이 대왕을 부를 때는 대왕이 세존의 아래이므로 “대왕아”라고 불렀다. 그리고 ‘의’와 여격의 ‘에게’는 유정성 명사에만 연결되어 왔다. 근래 특히 ‘의’는 무정물의 명사에도 광범하게 연결되고 있다. 위의 논의를 도식으로 제시하면 아래

와 같다.

### 도식 3

기준: 의미기준: 속격, 대격, 처격, 여격, 방향격

기능기준: 주격, 관형격, 목적격, 서술격

성조기준: 인칭 대명사: 1인칭 주격형은 거성 속격형은 평성, 2

인칭 주격형은 상성 속격형은 평성미지

칭 주격형은 거성 속격형은 상성.

유정성기준: 유정: ‘인/의’, ‘에게’

무정: 예, 의

존칭기준: ‘스’은 유정물의 존칭과 무정물

인/의는 동물과 사람의 평칭

호격 ‘하’는 존칭, ‘아’는 평칭

음운기준: 모음조화 규칙에 따라 달라지는 조사

자음과 모음에 따라 달라지는 조사

중세기 격조사의 유정성은 현대 한국어에도 남아 있는 것이 있다. 즉 한국어에서 조사 ‘에게’는 주로 [유정성] 자질을 가지는 명사와 결합하고 ‘에’는 주로 무정물에 결합하지만 명사의 [유정성] 자질과 상관없이 조사 ‘에’만 출현하는 경우도 있었다. 야마모토(1999:38)에는 유정성과 관련한 것으로 가장 전형적인 것은 화자 자신과 청자를 들 수 있고 제3자(3인칭), 국외자(局外者, bystander) 등도 이에 포함된다. 지역 사회, 기관 등도 유정성과 관련이 있으며 추상적 개체, 초자연적 존재, 인간과 유사한 기계, 의인화된 동물 등도 유정성을 가진 부류에 포함되어 있다. 여격 ‘에’는 무정물에만 쓰이고 ‘에게’는 유정물에만 쓰인다고 정의되어 있으나 유현경(2007)에서는 아래의 예문을 들어 언어 생활에서는 유정물에도

‘에’를 쓰는 경우가 있고 부정물에도 ‘에게’를 쓰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 (19) 은행이 그 돈을 맡아서 기업에게 빌려주는 거죠.
- (20) 그는 팀에게 기념비적인 우승을 안겨주었습니다.
- (21) 인질극을 벌인 10대 강도가 오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 (22) 지하철을 타고 있던 경찰에게 그 사람이 붙잡혀서 위기를 모면했다.

위의 예문에서 “기업, 팀”은 유정성 명사가 아니지만 ‘에게’가 사용되었고 반면에 “경찰”은 비록 인칭에 비해 유정성 위계가 낮지만 유정성이 반영된 직업으로서 “경찰”에는 ‘에’와 ‘에게’가 모두 쓰일 수 있었다.

이상의 논의에서 보면 한국어는 중세기에 일부 조사에만 한하여 나타나던 유정성 흔적이 점점 적어지나 현대에 와서 유정성의 사용 범위는 점점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5. 결론

본고는 언어 유형론의 주요 개념인 유정성과 그와 관련되는 변수를 살펴보고 유정성 계층 이론을 바탕으로 중세기와 현대 한국어 격조사에 반영된 유정성을 고찰하였다. 한국어는 중세기 조사 체계에서도 유정성을 기준으로 조사를 분류한 흔적을 볼 수 있었으나 현대에 와서는 많이 줄어들었다. 평칭의 유정명사에 붙는 관형격 조사 ‘의/의’, 그리고 특수한 명사나 대명사 뒤에 붙는 ‘의’, 부정명사나 존칭의 유정명사에 붙는 ‘의’가 사라지고 사람과 동물 등 유정물의 평칭에만 쓰이던 ‘의/의’와 유정물의

존칭에 쓰이던 ‘스’는 사라졌다. 그리고 유정물과 무정물로 구별되던 속격과 처격 ‘의/의’도 사라졌다. 반면에 유정성으로만 구별하던 조사 ‘에’와 ‘에게’는 현대에 내려오면서 그 사용이 항상 유정성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심리에 따라 선택된다는 실례를 보임으로써 한국어가 유정성이 높은 언어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격조사의 분류 외에도 격조사의 생략, 명사구의 어순 등에서도 유정성이 영향이 나타는데 이는 다른 논문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 참고문헌

- 김은일(2000), “유생성의 문법”, 현대문법연구 20, 71-96.
- 김충실(2014), “扩展生命度层级在汉韩复数标记上的反映”, 한중언문학회 제44집, 329-340.
- 송재정(2011), 〈언어유형론〉-형태론과 통사론-김기혁 역, 보고서.
- 연재훈(1995), “기능-유형 문법에서의 분석과 설명” 언어학 17, 한국언어학회, 203-230.
- 연재훈(1996), “여격 주어 구문에 대한 범언어적 연구”, 국어학 8, 241-275.
- 유현경(2007), “‘에게’와 유정성” 형태론 9권 2호(2007년, 가을), 257-275
- 이기문(1998), 국어사개설, 태학사, P.166-167.
- 주향아(2013), ‘와/과’ 등위 접속 명사구의 형성과 어순에 관한 연구-유정성을 중심으로, 국어 의미학, 42, 223-245
- Lindsay J. Whaley(2010), 〈언어유형론 언어의 통일성과 다양성〉 김기혁 역소통. P.223-238
- 高莉萍(2005), 生命度对汉语句语义的制约和影响, 天津大学 硕士论文.
- 科姆里(2011), 〈語言共性和語言類型〉沈家煊, 罗天华译, 北京大学出版社 第二版, P.215-232.
- 杨海明(2007), 生命度与汉语句法的若干问题研究 暨南大学博士论文.

王玉(2004), 汉语生命范畴初论, 华东师范大学出版社 上海.

威廉·克罗夫特(2009), 〈語言類型學和語言共性〉, 龚群虎译, 上海復旦大学出版社.

이름: 金忠实

소속: 上海外国语大学

주소: 상해시 신창 벽수로98번지9-1401

우편번호: 201100

전화번호: 135019255365

전자우편: kimzhsh@126.com

원고 접수일: 2015. 8. 15

심사 완료일: 2015. 12. 20

게재 결정일: 2015. 12. 30